

충렬공 탄신 800주년 행사 앞으로 추진계획

충렬공 탄신 800주년 기념행사는 지난 4월 28일 음수재에서 고유제를 29일 기념식과 기념 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10월27일(안동시 민회관), 11월 9일(서울역사 박물관)에 충렬공 관련 학술발표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술발표회는 한국중세사학회(회장 이정신교수)에 의뢰하여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 안동에 있는 충렬공께서 무술을 연마하시던 상락대에

학술발표회
10.27(안동)
11. 9(서울)

탄신 800주년 경모제거행 기념시비(詩碑)를 건립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종친 여러분께서는 안동과 서울에서 실행하는 학술발표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렬공 탄신 800주년 성금은 곧 마감 예정입니다. 납입 의사가 있으신 종친께서는 10월 말일까지 납입바랍니다. 성금납입 내역을 기록할 석조물 건립관계로 위 기일까지 부탁드립니다.

납입계좌:
국민은행 356201-04-132759, 농협 351-0222-3309-83
예금주: 안동김씨대종회

대전 뿌리축제 참석



지난 5월 25일 대전시 중구 침산동 소재 뿌리공원에서 제3회 뿌리축제가 열렸다. 우리 안동김씨는 당일 11시부터 인근 식당에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김씨대종회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난 4월 28일과 29일에 거행된 충렬공 탄신 800주년 기념행사 결과 보고와 동행사의 앞으로의 추진사항을 알렸고 대종회 현안토의가 있었으며 오후에는 개별적으로 뿌리공원과 족보 도서관 관람 후 뿌리 축제의 분중

퍼레이드에 참가하고 서울지구 참석자는 귀로에 연기대첩비를 참배하였다. 연기대첩비는(충남 연기군 서면 고북리 소재) 충렬공 둘째아드님인신도첨의공(諱 忻)께서 이곳까지 침범을 감행한 합단적을 물리친 바 있어 연기군민의 정성을 모아 건립한 비이며 비가 있는 연기군립공원 앞에는 고북 저수지가 있고 비 주변에 조각공원이 있어 연기군민의 휴식처가 되고 매년 10월에 이곳에서 연기문화원 주최로 추모행사가 거행된다. 뿌리공원에는 안동김씨 상징조형물이 2008년에 건립되어 있고 족보박물관에는 안동김씨 최초 족보인 경진보(대전시 문화재)가 기탁 전시되는 등 족보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회장 인사



유난히도 무더운 올 여름에 종친 여러분 건강하신킨지 문안드립니다. 우리 대종회는 지난 4월 28일 음수재 고유제와 29일 안동 탈춤 공연장에서 충렬공 탄신 800주년 기념제전을 봉행하였습니다. 당일 전국에서 일천삼백여 명의 종친과 유림께서 참석하시어 기념제전이 대성황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안동사회에 우리 안동김씨가 이렇게 번창한 씨족이며 화합과 단결을 과시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종친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념축전에 참가하신 유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우리는 10월 27일(안동시민회관), 11월 9일(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 한국 중세사학회에 위탁하여 충렬공 관련 학술발표회를 실행할 예정이며 또한 충렬공께서 무예를 연마하시던 상락대에

기념 시비(詩碑)를 건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종친 여러분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오니 힘써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화합과 단결로 종회가 발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친 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일 꼭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빌겠습니다.

2012년 8월 8일
안동김씨대종회 회장 김봉환

백범 김구선생 63주기 추도식 엄수



백범 김구선생 63주기 추도식이 2012년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백범기념관 대강당에서 백범기념사업협회 이남현

사무처장의 사회로 엄숙히 거행되었다. 300여 명의 추모인원이 참석한 추도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선생의 숭고한 독

립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국가 발전에 노력하자는 김신 백범기념사업협회 회장의 식사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추도사가 있었고 숙명여대 합창단의 추모가에 이어 헌화가 있었다.

우리 안동김씨에서는 30여 명의 종인이 참석하였고 봉회 대종회장과 선회 익원공파종회장이 대표로 헌화하였다. 오찬 후 안동김씨 참석자 일동은 묘소를 참배하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특히 전남 보성의 대호군공파종인 4명이 먼 거리에서 참석하는 성의를 보여 주었다.

알려드립니다

안렴사공파 문단공 우암(文端公 愚庵 諱 金澍) 先生의 탄신 500주년 기념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종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행사명: 우암 김주 탄신 500주년 기념행사
2. 일 시: 2012년 10월 21일(음 9월 7일) 오전 11시
3. 장 소: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귀백리 산 5번지 묘정
4. 행사내용
 - 가. 11:00 탄신 기념 고유제
 - 나. 11:30 우암 김주 시비 제막
 - 다. 12:00 우암의 업적과 발자취를 정리한 사료집 발간회
 - 라. 12:30 중식

5. 교 통 편: 서울지구는 잠실운동장역에서 당일 09:00경 버스운행 예정 (세부사항은 10월 1일 이후 안내장 발송예정임)
6. 문 의 처: 우암 김주선생기념사업회 사무총장 김영식 010-6201-1732
7. 알리는 사람
 - 여주문화원장 김문영
 - 안렴사공파 문단공화산군 종회 회장 김태영
 - 우암 김주선생기념사업회 회장 김태훈

안동김씨 국회의원과의 화합의 시간



지난 7월 24일 오전 12시 서울에서 19대 국회의원 당선 측을 국회의사당 앞 한 음식점 하 및 상견례를 위해 재경 안

동김씨 회장단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翼)김재경(3선 경남 진주), (翼)김회선(초선 서울 서초갑), 무소속 (副)김한표(초선 경남 거제 默行) 의원과 대종회에서 남웅 명예회장, 봉회 대종회장, 종묵 판서공종회장, 재광 문영공종회장, 이경, 영국, 태호, 선화, 부회장, 영채, 만길이사, 태운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인사를 나눈 후 점심을 하면서 일가간의 우의를 다졌다. 참석한 각자는 위선사업은 참여로부터 시작

한다며 앞으로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 및 약속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7일 오후에 재경 의원은 대종회를 방문 봉회대종회장, 태운사무총장과 많은 대화를 가졌다.



김 재 경
1961년 10월 10일생
경상대법대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제22회 사법고시합격
청주, 부산, 서울지검 검사,
3선 국회의원



김 회 선(會行)
1955년 5월 3일생
서울대 법대 법학과 졸
서울서부지검장
법무부기획관리실장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국가정보원 제2차장



김 한 표(默行)
1954년 8월 8일생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박사과정수료)
경남 거제경찰서장

서운관정공파 在文 종친 부이사관 승진



서운관 정공 諱 綏의 19세 손 在文 종친(1953生)은 累代 先鄉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에서 출생 고향에서 초·중등학교를 마치고 서울 동대문공업고등학교를 졸업 후 공무원의 길을 닦았다. 1981년에는 경기도 시행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합격하고 같은 해 시

행한 총무처 시행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도 합격하는 영예를 안았다. 81년 9월 서울시교육위원회로 발령 받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하였고 근무 성실하고 청렴하여 주위의 높은

신망과 칭송을 받았다. 재문 종친은 서울시교육위원회 예산과, 학교운영지원과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고 동부교육청 관리과장, 고덕평생학습관장 등을 역임하다 지난 7월 1일자로 3급 부이사관으로 승

진하여 서울시학생교육원 총무부장으로 발령 받아 취임하였다. 재문 종친은 서운관정공파 재문 이사장(파종회장)의 동생이다. 「서운관정공파 총무 규은 제공」

평생을 농촌에서 뜻을 이룬 노 종친



경남 의령군 부림면 대곡리에서 태어나 90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신 (翼)영학(榮學)종친은 익원공파 문정공 후손으로 위주소에 입향하신 화산(花山) 諱 지진(之振)공의 8세손으로 덕망이 있고 오직 부지

런함으로 일생을 지냈고 특히 1983년에는 전국 농어민증산왕에 선발되어 대통령 표창장과 황금메달을 받은 바 있다. 종친은 지금도 우리가 살길은 모두가 노력하여 증산하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고 한다. 우리 종친 모두가 본받을 분으로 이번에 알려졌기에 게재합니다.



대동보 발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동김씨 대동보 발간은 지난 총회에서 결의되었으나 총렬공 탄신 800주년 기념행사 등 현안이 있어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지난 7월 13일 대동보 편찬추진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회의에서 9인 소위원회를 구성 대동보 발간과 관련된 각종 규정과 세부내용을

종합·정리 하도록 위임받아 정리중에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제반 준비를 마치고 대동보 편찬에 들어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김영만 대종회 고문 진천향교 전교 취임



안렴사공파 전회장 김영만(대종회 고문)께서 2012년 8월 3일 충북 진천향교 전교에 취임하였다. 김영만 대종회 고문께서는 공무원 정년 후 안렴사공파 파종회장(대종회부회장 겸임)을 6년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 대종회, 문영공종회, 안렴사공파종회등 종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원로종친으로 이번에 진천향교 전교를

맡으신 것이다. 영만 전교는 취임사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일하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의와 효성과 질서 의식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으로 더 발전하는 사회를 이루도록하자고 하였다. 이날 대종회장을 비롯한 많은 종인이 참석 취임을 축하하였다.

복더위 염천(炎天)을 물리친 문온공파 문중사 세미나



충렬공의 생애에서 주요사항을 참석자들과 함께 살펴보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세 번째 강의는 윤만 총무이사 여말선초의 역사 기록을 통해 문온공께서 중국 대리(大理)로 유배가신 사유를 설명하고, 관향이 같은 우리 안동김문과 김선평계의 신안동 김씨 유래 및 양가문의 구별방법

2일째 행사는 종택에서 아침 식사 후 오전 8시부터 영환 부회장의 설명 및 안내로 금수정에 세워진 문온공 시비(詩碑) 해설을 필두로 금수정 주위 곳곳에 산재한 암각문 답사로 이어졌다. 상세한 영환 부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참석자들은 직접 연화암과 경도 바위에 올라가는 등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냇물 한가운데 가장 큰 바위에 초서(草書)로 새겨진 '경도(瓊島)'는 문온공 종손가 선조 글씨로서 글자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2미터가 넘는 대작이라 그

뜨거운 호응을 보인 참석자들의 열기에 감사한다."며 제1회 문온공파 문중사 세미나가 성황리에 끝난 것을 크게 평가하였다. 가까이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멀리 충청·대구지역과 영·호남에서 참석한 종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말 뜻깊은 행사였다. 감동적이었다. 행사를 치르는 비용이 문제였으나 가능하다면 2~3년에 한 번씩이라도 행사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처럼 예상보다 많은 종인들이 참석하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제1회 문온공파 문중사 세미나가 2012년 7월 28일부터 29일(1박 2일)까지 100여 명의 종인과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온공(휘 九容) 종택(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거리 557번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 목적은 문온공 후손으로서 갖추어야 할 문중사 및 예법에 대한 소양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해 전부터 파종회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기획해 온 행사였다. 본래 이 행사는 파종회 임원을 대상으로 계획되었으나,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인들의 요청을 수렴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일반 종인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또한 대종회 태운 사무총장, 판서공종회 중묵 회장 및 군사공파 칠정문종회 임원진, 이금회(二金會) 회원 등 귀빈들이 참석해 더욱 빛나는 행사가 되었다.

첫 날 행사는 종택에 집결한 80여 명의 종인들이 오전 10시경 금수단을 성묘한 뒤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금수정 잔디밭에 모여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 날 문온공파종회 영국(榮國)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온공파 종인뿐만 아니라 다른 파 종인들까지 많이 참석한 것에 대해 감사사를 표하면서 "이번 세미나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안동김문 전체적으로도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만큼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판서공종회 중묵 회장, 대종회 태운 사무총장, 군사공파 재하, 재구, 남현, 발용, 태우, 태영 종친, 익원공파 재영 종친, 안렬사공파 영식 종친 등 귀빈들을 소개하였다.

판서공종회 중묵 회장은 "안동김문 최초의 세미나 행사를 축하하며, 부단히 노력하는 문온공파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축하하였다. 대종회 태운 사무총장 역시 "문온공파 세미나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종회장께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당숙께서 작고하시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두루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대종회장 근황을 전했다. 광도 종손은 환영 인사말을 통해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많은 종인들이 참석한 것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윤만 총무이사의 행사일정 안내로 본 행사가 시작되었다. 첫 강의는 오후 2시 정각에 영환 부회장이 제례법과 종택의 역사 및 문온공 약사를 설명하였다. 특히 종인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제례법은 진설법, 지방·축문 쓰는 법, 제례 순서, 절하는 법 등을 실례를 들어 가며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두 번째 강의는 윤식 이사가 안동김문의 상계도, 충렬공·문온공 파계도를 간략히 설명한 뒤 충렬공의 연보를 통해

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마지막 강의는 문온공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은 물론 평소 위선사업과 종사(宗史) 연구에 헌신해 온 재승 고문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충렬공과 문온공 등 선조님들의 위대한 행적에 대해 귀한 말씀을 들려 주었다. 아울러 정성껏 작성한 도표와 찌렁찌렁 울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종인들이 주목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강의가 끝날 때까지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위로 인해 속옷까지 흠뻑 땀에 젖었으나 참석 종인들은 단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고 강의 내용을 하나라도 놓칠까 메모를 해 가며 경청하는 열의를 보였다. 참석자들과 강사진의 열정으로 세미나는 예정시간이 훨씬 지나서 저녁식사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야 종료돼 중국 답사 슬라이드 상영(선조님 발자취를 따라 중국에 가다)는 이틀째 행사로 미뤄졌다.

오후 7시부터 1시간 가량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8시부터 참의공계 백묵 종친 주관으로 흥겨운 레크레이션 및 단합대회가 시작되었다. 백묵 종친은 '한강'이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트로트 가수로서 영국 회장 등의 노력으로 이번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다. 백묵 종친은 능숙한 솜씨로 레크레이션 시간을 진행함으로써 흥겨운 한마당 잔치로 승화시켜 참석자들에게 한여름 종택에서의 꿈결같은 추억을 선사하였으며, 예정시간을 넘겨 오후 11시경이 되어서야 단합대회가 끝났다. 참석자들은 이후부터 종택 사랑채 백운루와 행랑채는 물론 금수정 잔디밭에 텐트를 치거나 인근 모텔 등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이른날 행사에 참석하였다.



동안 사학자와 문인 등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아 온 암각문이기도 하다.

한편 첫날 저녁무렵부터 참가 종인들이 속속 종택에 집결해 2일째 행사에는 어느덧 100여 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그 덕분에 행사는 더욱 열기를 더해 갔고, 2시간에 걸친 암각문 답사 뒤 참석 종인들은 종택에서 윤만 총무이사의 해설로 <선조님 발자취를 따라 중국에 가다>를 감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승 고문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몸속으로 타고 흐르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것은 몇 달 전부터 관계자들을 섭외하고 행사를 총지휘한 파종회장의 노력과 이사진의 철저한 기획 및 사전 점검, 묘화에 세거하면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한 별제공종중의 뒷바라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파종회 고문의 협조와 격려도 큰 힘을 실어 주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위를 무릅쓰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참가자들의 열기야말로 행사를 빛나게 한 원동력이었다.

「기사제공자 문온공파종회」



꼭! 읽어보세요

이 회보는 여러분의 회비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회비 납부실적이 저조하여 타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상 회비(년 2만원) 또는 평생회비(이십만원)를 꼭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비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계좌로, 회비를 내지 않으면 회보 발송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 회비, 찬조금 입금 계좌

- 국민은행 356201-04-133305
 - 농협 351-0222-3309-83
- 예금주 안동김씨대종회

제학공과 제2회 여름캠프 성황리에 실시 --또 하나의 나를 찾아서--



제학공과총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부터 1박 2일간 충남 천안시 병천면과 동면 일대에서 전국에서 찾아 온 약 70여 명의 종친들이 모인 가운데 제학공과총회에서 주최하고 제학공과 수도권총회에서 주관하는 제학공과 제2회 여름캠프 행사를 성황리에 실시하였다.

〈또 하나의 나를 찾아서〉란 표제 아래 안동김문 후예로서의 자긍심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선조님들의 숭고한 정신과 위대한 업적을 더욱 빛낼 수 있는, 선조님들이 남기신

유 무형의 역사 유물과 유적을 소중하게 보존하며 전통예절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후손으로 거듭 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해 과산 지역의 제1회 대회에 이어 개최되었다.

7월 21일 오후 3시, 제학공과 최대 세거지요, 문숙공(휘永暉), 상락백공(휘 績), 제학공(휘 益達)의 영단이 모셔져 있는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의 안동김씨 최대 규모(50평)의 재실인 영모재(永慕齋, 2011년 11월 건립)에 모여 행사를 시작하였는데 국민의례에 이어

상천 제학공과회장님, 태극 수도권총회장님, 천웅 백전종중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고 남웅 전대총회회장의 축하 말씀 등이 수도권총회 향유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어 학암종중(휘 時進 후손 종중) 회장으로서는 현 충남 전례원(傳禮院) 원장으로 계신 태현종친님으로부터 자료집을 중심으로 한 기초 예절과 절하기, 제복 입기에 대한 해설과 실습이 있었고, 향유 종친으로부터 독촉법과 창출법 강의와 실습이 있었다.

오후 6시에는 인근의 <돌모루 식당>(용남종친 운영)에서 석식을 하며 입시 이사회의를 한 후 다시 영모재에 모여 제학공과 주요 선조님들의 분야별 명인록 발표와 해설, 충무공(휘 時敏) 교서 외 약 100점에 이르는 제학공과 주요 역사 자료 전시물 해설과 백곡공(휘 得臣)의 시문 창작가곡 감상과 연주 및 합창을 하고 충무공 진주대첩 동영상을 시



청한 후 취침에 들었다.

22일 아침 8시부터 간간히 내리는 빗속에서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봉향리, 송정리와 동면의 구도리, 장송리 일대의 주요 역사지 탐방 및 선조님

들 묘소를 성묘한 후 오후 4시, 장송리의 사직공 합동 묘원 성묘를 끝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고 내년 행사를 약속하며 해산하였다.

「제학공과 수도권총회 제공」



▲ 필자근황

이 글은 「빛지고 저승에 가기 싫다고 한 시골노인」에서 저자의 승인을 받아 전제한 것입니다. 글을 쓰신 김창희도 평의공과총회장은 의성출생으로 의성향교전교, 박약회부회장, 의성도서관장, 의성신문주필이며 도산서원과 국학진흥원에 출강하고 있다.

〈편집자 주〉

사람에게는 세 가지 불행이 있다(人有三不幸)

북송(北宋)의 대유학자 정이(程頤)는 호가 이천(伊川)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천 선생이라 말한다. 그의 자(字)는 정숙(正叔)이요, 낙양에 살았으며 시호(諡號)는 정공(正公)이니 명도(明道)선생 정호(程顥)의 아우님이다.

그는 처음으로 리기(理氣)철학을 제창하여 유학의 도덕적 기초를 세웠으며, 다음의 글을 후세에 남겼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불행이 있으니 소년 시절 과거에 오르는 것이 첫째 불행이요, 부

형의 권세를 의지하고 분에 넘치는 벼슬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불행이요, 초년시절 재주가 높아 문장을 잘하는 것이 세 번째 불행이라 하였다.”원문을 괄호 안에 기록한다(伊川先生曰 人有三不幸하니 少年登科一不幸이요 席父兄之勢하여 爲美官함이 二不幸이요 有高才能文章이 三不幸也니라).

다시 말하면 소년 시절 과거에 오른 것은 학문을 넉넉히 발전시킬 수 없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불행으로 말했으며, 남의 세력을 빌어 벼슬에 오르면 올바른 인물을 닮을 수 없으므로 불행이며, 민첩한 재주로 이름을 날리는 것은 덕행을 닦는 데 장애가되기 때문에 불행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소학(小學)의 가언(嘉言)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행복은 복이 많고 거리낌 없는 좋은 운수를 말하며 생활이 충분하고 마음이 여유로워 기쁨을 느끼면서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위의 세 가지 조건은 불행이 아니고 행복으로 말합이 옳을 것 같다. 그런데도 불행으로 삼았으니 현대인이 누리는 행복과 불행, 옛날 어른들이 누리는 행복과 불행은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다.

지금 사람들은 인생의 삼불행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년무전(老年無錢)이 첫 번째 불행이요, 중년상배(中年喪配)가 두 번째 불행이요, 소년등과(少年登科)가 세 번째 불행이라 말하였다.

첫째는 늙어서 용돈이 없음을 말한다.

손자도 용돈을 쥐야 찾아오고 용돈 궁하면 친구에게도 소외당한다. 객지 생활하는 아들이 매달 용돈을 보내주고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까지 받으면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예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는 높아가고 가족의 부양비용도 나날이 증가한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아들의 가족과 함께 살자니 자연히 마음이 편하지 않고 행동거지도 자유롭지 않으니 저절로 눈치를 살피게 되고 때로는 나오지 않는 옷에도 옷어야 하는 시집살이를 살게 된다. 이렇게 비참하고 서글픈 사람들도 청년 시절에는 어려운 세월을 살면서 부모 받들고 자식 공부시키고 좌충우돌하는 사이에 정신없이 살았다. 이제 머리카락은 희어지고 주름 같이 깊어 졌지만,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준비되어야 취미도 살리고 친구들도 허심탄회하게 어울릴 수 있다.

두 번째는 초년도 말년도 아닌 중년에 배우자의 사별 또는 이별을 말한다

중년에 남편이나 아내를 여의면 집안이 엉망된다. 어쩌면 종비박산이 될지도 모른다. 자식들의 교육문제, 혼사문제도 끝나기 전에 이 같은 경우를 당하면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집안이라도 가사는 정리되지 않는다. 통계청이 자살 사망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를 잃은 사람의 자살률이 배우자 있는 사람에 비해 5배가 된다고 보도하였

다. 비록 교육과 혼사가 끝난 집안이라도 이런 경우를 피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속담에 상처가 망쳐라는 말이 실감 난다. 지금 세상은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배우자의 건강을 자신의 건강보다 더 챙기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어간다. 부부가 나란히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경우가 허다하며 결혼기념일을 찾아 선물이나 오가는 등 심리적 위안을 주고받고 하는 세상이 되었다. 효자불여악처(孝子不如惡妻)의 고사는 요즘 생김말이 아니다.

☞ 다음호에 계속

백범일지 독서 감상문을 모집합니다. 꼭 제출하여 주세요!

지난 4월 29일 안동탈춤공연장 총렬공탄신 800주년 경모제전에서 배부한 백범일지는 백범기념사업협회의 지원품입니다. 백범일지를 읽고 감상문을 안동김씨 대종회에 제출하시면 업종 심사하여 2013년 3월에 안동김씨 대종회 제46회 정기총회에서 백범기념사업협회 정관에 따라 표창할 계획이오니 많은 제출을 바랍니다.

1. 제출방법 : 감상문을 직접 대종회에 제출
• FAX: 02)2243-1073.
• e-mail: andongkimgu@naver.com
2. 제출기한 : 2012년 12월 31일
3. 제출자격 : 백범일지를 읽은 누구나 (본관과 성별 연령등 제한 없음)

조선의 효자 김상혁(金相赫)과 열녀 전주이씨(全州李氏)의 실기

朝鮮孝子金相赫烈女全州李氏實記 (세조가)
 宇順之요哲廟辛卯七月二十五日生하여壬辰三月二十五日卒하니壽가六十二라墓는移于舊清安北面九溪里紫山이다公之子時應이亦繼述其父之志하여事公之節을一如公之事先公하니兄弟親戚이無不敦睦故로鄉里士林이薦褒道營하여亦同旌表蹟하니一室之内에是有是子而盡孝於父母하고有是婦而盡心於君子하여一門二孝一烈蹟夫人李氏事舅姑에以孝하고事夫以禮하여同旌揭蹟하니事見勝覽이라剛庵全州崔相龍이撰行狀碑文하고族人聲應이歎贊曰公之誠孝가根於天性하여生有辛異之行하여自紹範로事親之節을一遵古禮하다當其先大人殞絶하여嚙指注血하여數日回甦而不幸丁憂하니三年居廬을一如担括之日하고其後母氏以痰症으로未能屈起而醫云山骨神效云이나時適臘雪數尺하여欲求無方이라百里許忠州等地에云하여即去其處하여誠心暗祝하니忽有老人指示出處하고回忽不見이라果得數十枚하여用之即效하고數年後에又有癰疾하니醫云鴉湯用之에可以得效라하다時方隆寒에鴉鳥純無하니禱天祈神하니忽見雙鴉가飛入厨下하여取以煎供하니即效하다此乃天神感應이라以終天年하니居廬之節을一如前喪하고及季年하여自得惡疾하여百藥無效하니醫云人肉用之라야可以得效라하니夫人李氏가聞而入暗室하여自割股肉하여煎供하고始云牛肉이라하다飽啖一頓에果得痊效하다李氏割股刀痕은勿藥自瘳하니至誠所到에神明所感이라李氏懿行은事姑之節을與夫同하여極盡婦道하고事夫에極盡妻道하다公之子時應이亦繼述其父之志하여事公之節을一如

公之事先公하고兄弟親戚에無不敦睦故로鄉里士林이薦褒道營하여亦同旌表蹟하니一室之内에是有是子而盡孝於父母하고有是婦而盡心於君子하여一門二孝一烈은眞可謂萬世模範矣云이라公之墓는移于槐山郡沙梨面中興里桃花洞後山旌門後乾坐合祔하고配全州李氏는壬寅三月二十七日生하여庚辰五月二十八日卒하니父義植이요祖는國觀이요曾祖는彭錫이요外祖는陽川許櫟이다墓는桃花洞에與公合祔하다

자는 순지(順之)요 철종(哲宗) 신묘 7월 25일(1831년)에 출생하여 임진 3월 25일에(1892년) 세상을 뜨시니 수가 62 세시다. 묘소는 옛 청안북면 구계리 안산으로 이장하였다.
 공의 아들 시응(時應)이 또 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배워서 공을 섬길 적에 모든 범절을 한결같이 공이 그 선공을 섬기듯 하고 형제간이고 친척 간에 돈독을 하지 않는 법이 없으니 지방의 선비들이 지방 장관에게 효자를 추천하여 포양하여 아버지의 같은 정문에 행적을 기록했으니 한 문안에서 이런 아들이 있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이런 부인이 있어 남편에 마음을

다하여 한문 중에 두 효자와 한 열 부가 있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부인 이씨는 시어머니를 섬김에 효성을 다하고 남편을 예로서 섬기어 같은 정문에 행적을 기록했으니 일이 여지승람에 나타나 있다.
 강암 전주 최상룡(剛庵 全州 崔相龍)이 행장과 비문을 짓고 일가 사람 성응(聲應)이 탄식하고 칭찬해 말하기를 공의 효성은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타고나서 어려서 부터 특별한 행동을 보였고 7, 8세부터 어버이 섬기는 도리를 한결같이 고례에 따라 실행하였다.
 그 아버지가 병환이 위독하여 운명할 직전에 이르자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아버지에게 피를 먹여 수일간의 생명을 연장하였고 불행하게도 상사를 당하니 3년간의 여막생활을 초상을 당했을 때 같이 슬퍼하였고 그 후에 어머니가 담증으로 굴신을 못하니 의원이 말하기를 산골이 유효하다 하였다. 마침 동지설달이라 눈이 온 산천을 뒤덮고 있어 산골을 구하려 해도 방법이 없었다. 그런 끝에 100리 길의 충주 등지에 산골이 난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그곳을 찾아 갔으나 또한 황량한 산골이라 찾을 길이 없었다. 그리하여 공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하늘에 빌었다. 제발 산골이 나는 곳을 알려 주셔서 우리 어머니의 병환이 낫도록 해주라고 몇 번이나 뇌까리며 반복하였다. 이윽고 눈을 떠보니 홀연히 한 노인이 나타나 저기에 산골이 있다고 알려 주고는 홀연히 노인은 없어져 버렸다. 과연 수십 개의 산골을 주어 집에 돌아와 시험해 써보니 신통하게도 어머니 병환이 나왔다.
 수년 뒤에 어머니가 또 높은 병환이 나서 의원이 비둘

기탕을 쓰면 좋다고 하였다. 그때가 겨울철이라 비둘기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또 하늘에 기도하고 신명에게 애원하고 하소연하였다. 홀연히 쌍 비둘기가 나타나더니 부엌 속으로 들어와 이를 붙잡아 다리어 드리니 어머니의 병환이 쾌유하였으니 이것은 또한 공의 지극한 효성에 천지신명이 감응하여 기적을 이룩한 것이다.
 그 후 어머니가 천수를 다하고 돌아가시니 집상하는 절차를 한결같이 아버지 상사 때와 같이 하였다.
 만년에 이르러 이제는 김공이 자기 스스로 악질을 얻어 백악이 무효하니 의원이 말하기를 사람의 고기를 써보면 가히 효력을 얻을 것이라 하니 그의 부인 이씨가 이 말을 듣고 몰래 험실에 들어가 자기 다리의 살점을 도려내어 구어서 남편에게 드리며 소고기라고 속였다. 남편은 그런 줄만 알고 맛있고 또 배부르게 먹고 하룻밤을 자고 나니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 이후 이씨 부인의 다리의 살점을 도려낸 흔적은 악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나왔으니 지성이 미치는 곳에 신명이 감동한 바라 하겠다. 이씨의 아름다운 행적은 시어머니를 섬김에 남편과 함께 성의를 다하여 며느리 된 도리를 다하고 남편을 극진히 섬기어 아내된 도리를 다하였다.
 공의 아들 시응(時應)이 그 아버지 뜻을 이어받아 공을 섬기는 범절을 한결같이 공이 선공을 섬길 때 같이 하고 형제 친척 간에 돈독을 돈독히 하지 않는 일이 없으니 향리 선비들이 도백에 천거하여 포양하고 또한 아버지의 정문 속에 같이 정표 하여 기록하니 한 문안에 이런 아들이 있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이런 아내가 있어 마음을 남편에게 다 바쳐 한집안에 두 효자와 한 열 부가 났으니 참으로 가히 만세의 모범이 된 가정이라 하겠다.
 공의 묘소는 과산군 사리면 중흥리 도화동 뒷산 정문 뒤 건좌에 합궐하였다. 배위 전주 이씨는 임인 3월27日生하여 경진 5월28일에 졸하시었고 아버지의 의식(義植)이요 조(祖)는 국관(國觀)이요 증조(曾祖)는 팽석(彭錫)이요 외조는 양천 허능(陽川 許櫟)이다 묘소는 도화동에 남편과 합궐하였다.



효열각(孝烈閣)과 묘소는 종손 용두씨가 잘 관리하고 있으며 용두씨 댁에는 제학공 7세손 과산군수공(金南濟) 교지(세종 18년, 1436년에 내려

대중회보 원고 제출

대중회보는 종친 여러분께서 제출하시는 원고를 정리하여 발간합니다. 대중회보 원고제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원고제출기일은 매 분기 두 번째달 초순입니다. (홈페이지에 매번 공고) 마감후 제출된 원고는 다음번에 게재합니다.
2. 원고를 보내실 때에는 사진을 적당량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3. 원고 내용은 꼭 종친회에 관한 것이 아니라도 무방하오니 많은 원고 제출로 회보의 내실 화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 호(117호) 발행은 총렬공 탄신 80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 일정 관계로 10월 10일 원고를 마감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용장서원(龍章書院)



용장서원은 전북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에 위치해 있고 태종2년(1402년)에 창건되었다. 창건 이후 조선 말기까지 이 고장 자녀 교육에 이바지한 바가 컸으며, 수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왔다. 그러나 고종 5년(1868년) 서원 철폐령에 의하여 철폐되었으며, 그 후 1988년에 복원 복설하였다.

이 곳에는 고려 충신 양능양(梁能讓)을 주벽으로 같은 고려기의 충신 양주운(梁朱雲), 고려말 성리학자 김구용(金九容 태종5년(1405년) 을유에 배향), 임진왜란시 공신 양대박(梁大樸)등을 배향하고 있으며 매년 3월 17일(음) 제향을 올린다. 이곳의 문온공 위패가 문경공(文敬公)으로 잘못 쓰여져 있어 이를 문온공과 참의공계千金중친이 노력을 기울이고 비용을 부담하여 문온공(文溫公)으로 바르게 고치고 2006년 11월 15일 고유제를 올린 바 있다.

용장서원과 문온공 관련 각종 제문 등 옛날 문헌을 (文)在吳 종친회에서 정리하신 것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편집자」

南原龍章書院上梁文略

大司成公惕若齋金先生姿性戇直學術精深
詩寫冲襟寄洒 落於鶴峙鷗潔經尋墜緒講微
妙於牛毛蠶絲辛朝斥邪荷衣屏驪上之騎北
庭抗節素冠招瀘中之魂文山燕獄之冤至今
流涕魯連海東之想於茲妥靈志節同符於三賢
祀享永垂於一體

남원(南原)용장서원(龍章書院)상량문(요약분)

대사성이신 척약재(楊若齋) 김 선생께서는 용모와 성품이 우직하시고 학문이 정밀하고 깊으시니 시문이 가슴에 꽂 차서 글붙임이 학과 갈매기처럼 우뚝하고 새락하며 소털과 누에실 처럼 고르게 연결되어 미묘하시다. 신조(辛朝)의 사악함을 배척하여 옷을 둘러매고 나귀를 탄 나그네로 물리었으며 원(元)나라에 항

거하다가 의관없이 노강(瀘江)의 혼백으로 초혼되었다. 문천상(文天祥:文山)이 연옥(燕獄)에서 당한 억울함같이 지금에도 눈물을 흘리게 되어 노중련(魯仲連:魯連)이 동해에서 익사한 생각으로 이에 혼령이 편안하시리이다. 뜻과 절개가 삼현(三賢)과 부합되시매 제사를 받드심이 동일하게 영원히 드리우리다.

註: 楊若齋: 金九容(1338~1384)의 號

辛 朝: 辛旽의 조정이란 뜻으로 耦王과 昌王 양대를 비하한 말.

文天祥: 魯仲連은 모두 忠節이 있는 志士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다.

三 賢: 세 분의 어진 이. 여기서는 圃隱 鄭夢周, 牧隱 李穡, 陶隱 李崇仁.

龍章書院 奉安文

福岳鍾靈顯顯令德資性粹如行義剛克麗季
僻陋世味經方性理之學自公始倡圃陶兩隱
與之齋名道學文業一世矜式妙齡通籍師表
國學開豁心目日星炳若辛朝秉忠北庭抗直
始竄竹南竟流瀘北萬里招魂一盃東天白鷗
黃鶴月生精神龍章古祠重建昭嚴

용장서원 봉안문

복악(福岳)에 영기가 모였으니, 훌륭한 덕업이 명백하도다. 용자와 성품이 순수하시고 행위가 강직하였도다. 고려 말엽에 문화가 뒤떨어져서 경국의 방도가 흥미하였는데 성리학은 공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포은과 도은으로 더불어 명망이 같았으며 도학과 문업이 당대의 모범이 되었다. 젊은 나이에 경적을 통달하였으니 국학에 사표가 되었으며, 마음 공부를 넓게 열었으니 밝기가 일월 같았다.

신조(辛朝)당시 충절을 지녔으며 원나라(元國)에는 곧게 항거하였다. 처음에는 죽남(竹南)으로 귀양 갔다가 마침내 노북(瀘北)으로 유배되었으며 만리 밖에서 혼령을 청해 동쪽을 향해 술잔을 올렸다. 백구와 황학같이 정신이 달과 같이 밝았사오니 용장(龍章) 옛사당을 다시세워 밝게 갖추었다.

龍章書院 誌錄略

大司成公惕若齋金先生本以南原府使清白
史廉潔治績施惠民頌德故立祠而又與圃隱
鄭先生始倡性理之學辛朝力斥奸臣李仁任
嘗使北元以國書不遜大被咆喝抗節不屈遂
竄大理衛至瀘洲病卒以帝命衣冠招魂而葬
恭讓王二年庚午立院

용장서원의 서원지를 초략함

대사성공이신 척약재(楊若齋) 김 선생께서는 본래 남원부사(南原府使)로서 청백리(清白吏)로 청렴결백하여 공적을 이뤄 은혜를 베풀었으니 백성들이 치덕을 칭송하여 사당을 세웠으며 또한 포은 정선생(圃隱鄭先生)과 더불어 성리학을 창시하였다. 신조(辛朝)와 간신인 이인임(李仁任)을 힘써 물리쳤는데 일찍이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국서(國書:우리나라에서 공이 써 갖고 간 글)가 공손하지 않다하여 크게 꾸짖음을 당했으나 절개를 굽히지 아니하고 항거하다가 드디어 대리(代理)로 귀양 가게 되었고, 노주(瀘州)까지 끌려가서 병으로 생을 마쳤었는데 황제의 명에 의하여 의관으로서 초혼하여 장사를 지냈으며 공양왕 2년 경오년에 이 서원을 건립하였다.

倡學識略

我 朝文明之治實三代以後鮮有其此而其
源蓋始於王氏之季何者勝國五百年間賢明
之主豪傑之佐亦不爲不多而至於聖賢義理
蓋蔑蔑也及其垂亡之際牧隱李先生爲大司
成圃隱鄭先生惕若齋金先生陶隱李公潘南
朴公之諸賢俱以本官兼學官勉進後學於是
一國章甫之流琢磨舊習薰陶德性程朱性理
之學大明於世以陶成 我朝三百年儒雅之
化至于今家習正學人知大方不失其蹊徑者
伊誰之力歟嗚呼惟樟之生後先生蓋三百有
餘年而又孤陋甚其於大賢德業安敢有所知
識而能發揮其萬一哉數行文字雖甚草草亦
以見吾東方斯文發源之由

위패봉안 축문

以酒脯用仲虔告謹告

遺風古祠位牌文敬謨書不勝惶悚文溫令舒士林裔孫心將清虛謹

逢貢馬遲緩明帝怒濃大理流配逢病命窮士林建祠慕仰

俞興儒斥佛斯文大功文章道德振華東元明二國禮使相

文溫公惕若齋金先生伏以父平章事祖良簡公外祖文溫友鹿五

敢昭告于

檀君紀元四千三百三十九年歲次丙戌十月癸未朔十五日丁酉

後學房仕源

창학에 관한 간략한 기록
우리 조정에 문명의 치적이
삼대 이후에서야 이같이 드물
게 두었으며 그 근원을 대개
고려말엽으로 시작했음은 어찌
된 까닭일까. 승국(勝國) 오백
년간에 현명하신 군주와 호걸
스러운 신하가 적지 않았건만
성현과 의리에 있어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그 종말에 미쳐서
는 목은 이선생(牧隱 李先生)
께서 대사성이었고, 포은 정선
생(圃隱鄭先生)과 척약재 김선
생(惕若齋 金先生), 도은 이공
(陶隱 李公), 반남 박공(潘南
朴公) 같은 제현께서 함께 본
직이나 학관으로서 힘써 후학
들을 길렀으니 이에 나라 안의
선비들이 옛습속을 갈고 쫓아
덕성을 마련하였으며 정자(程
子)와 주자(朱子)의 성리학이
세상을 크게 밝혀서 왕성하게
되었다. 우리 조정에서의 삼백
년에 걸친 훌륭한 학문이 지금
에 이르러서 가정마다 올바른
학문을 익히고 사람들이 큰 방
도를 알게 되었으니 그 지름길
을 잃지 않는 것이 그 누구의
힘이리요. 아! 유장(惟樟)의
태어남이 선생보다 대략 삼백
여년 뒤였으니 전문이 적고 물
정에 심히 어두우니 대현들의
덕업에 있어 어찌 감히 아는
바가 있다고 그 만분의 일이라
도 능히 발휘하리요마는 두어
줄 문자가 비록 보잘 것 없으
나 역시 우리 동방 유학의 발
원 여부를 보게 될 것이다.

註 勝國：高麗의 指稱함이
니 앞선 나라를
높여 이르는 말.

惟樟：이유장(李惟樟)이
니 號는 孤山이다

임란공신 추모대제 봉행



지난 6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
리 호국사에서 제420주기 호국대제가 200여 명의 참제원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이날 대제의 초헌관은 보령시장을 대리한 전운수 보령시
부시장, 아헌관은 황현기, 종헌관은 송은규이었다.

우리 안동김씨는 이 곳 호국사에 원주성에서 순국하신
(提)문숙공(文肅公 諱 梯甲), 진주성전투의 영웅이신 충무공
(忠武公 諱 時敏), 충주 탄금대에서 순절하신 (翼)충민공(忠
愍公 諱 欽) 세분이 배향되어 있다. 이날 대제에 익원공파에
서 재관충민공종회장과 정회, 재식, 재택 부부가 참여하였다.

「재택논산종친회 총무제공」

(주)兩白 문화재

문화재수리/한옥/사찰/제실

보수단청업 01-16-0042호



대표이사 김 진 식
(총렬공 27세손, 익원공파)

문화재기능자 대목수 제 4459호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장승진흥회 이사

경북 영주시 하망동 325-19(3F)

TEL. (054)636-1239

C·P. 010-3507-1239

E-mail : ddundol@hanmail.net



대 원 수지공업(주)

스치로폴종합제조원

대표이사 김 재 남

(화성·수원 종친회 회장)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16-4
TEL : (031) 356-7272~4
FAX : (031) 356-7275
H·P : 010-4588-7272
http : //www.daewonsp.co.kr

香田園藝

경조화환·학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448-21

TEL : 02-445-9777, 6888,

02-783-3166

FAX : 02-445-6999

H·P : 010-2490-0707

대표 김 재 군

전국 꽃배달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도평의공과 재경종친회는 2012년 5월 19일(토) 18:00 물레방아 한식집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지난해 9월 24일 대종회 회관(4층)회의실에서 도평의공과 수도권 종회를 재창립한 후 회장단 및 집행

도평의공과 재경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부 모임을 갖고 고문(자문위원)과 이사진을 구성한후 임원회, 신년회 등 여러차례 모임을 거쳐 더욱더 내공을 다지면서 2012년도 정기총회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원종 회장님은 인사말에서 참여와 소통의 두 수레바퀴를 열심히 끌고 가겠으니 협조를 바란다는 등 말씀에도 뜻이 있고 무게가 다름을 느꼈고, 올해는 중시조님이신 충렬공탄신 800주년의 해라 더욱더 뜻

있는 한 해이며 단합된 한마음으로 지난 번 송모전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라 가을에 학술대회 행사 시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는 봉회 대종회장님의 격려사와 회수 명예 회장님의 덕담 인사도 모두가 800주년 행사에 몰두되어 있는 느낌이었고 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우리 안동김씨의 위상을 한층 드높인 점에서는 모두가 공감하였다.

원종 회장의 인사말과 같이 본회가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각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 의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는 모임과 정기총회였던 것 같고 종친 여러분들의 협조와 관심도 대단하였다. 또한 즉석에서 여러 종친분들의 상당한 찬조가 있어서 우리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 같았다. 지묵, 재수, 회열(자문), 은성, 태식, 창희, 회묵, 태신, 은수, 시중, 종친들

의 찬조와 봉회 대종회장님, 대종회에서 금일봉이 있었으며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현 김.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인 병일 이사께서 식대 전액을 찬조하였고 당시 찬조 못하신 분들도 추후에 계좌(신한은행 110-352-157590 김원종)로 입금하신다 하여 더 뜻깊은 자리이고 앞으로의 발전을 보였다.

「도평의공과 재경종친회 사무국장 김우희 제공」

안렴사공과 수도권 종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6월 30일 오전 11시 안동김씨 대종회 회의실에서 안렴사공과 수도권 종회(회장 태룡)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국민의례에 이어 회장의 인

사말이 있은 후 총렬공탄신 800주년 행사에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화합과 단결로 종회발전에 노력하자는 봉회 대종회장의 격려사가 있었고

임원개선에서 신임 회장에 섰 회(聯會 목사공손) 종친을 선임하였고 기타 집행부 구성은 회장에게 위임하고 회의를 마쳤다. 신임 선회회장은 취임인

사 말에서 화합과 단결로 종회발전에 노력하며 위선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자고 하였다. 「안렴사공과 수도권 종회 제공」

정간공 사적비 건립 기금 지파별 종회 성금 내역

○ 안렴사공과 : 1300만원. 석물안치장소대여 약50평
○ 익원공과 : 1000만원. ○ 서운관정공과 : 700만원
**대종회 회장 김 봉 회 금일봉

- 100만원 : (按)오창소윤공종회, 진천좌랑공종회, 여주판교공종회 (翼)수원참의공종회, 안동부사공종회, 청주함열공종회
- 50만원 : (按)태문오창파종회회장, 선회청주청주시종회회장, 오창신창공종회, 재웅내판(진사공손) (翼)명회부여전대종회사무총장, 선회익원공과 파종회회장, 태영청주전파종회회장, 문원(목사공손) 용세당진(목사공손), 용대서울전문영공종회회장, 고창도암서원 (書)상호 전이사장, 재준성남 이사장
- 30만원 : (按)용원사손(연기), 용주여주판교공종회회장, 수도권종회, 낙회오창, 영만진천전파종회회장, 오창상평지사공종회, 겸문사석. (翼)재창수원, 재영수원동추공종회회장, 재용수원전파종회회장, 태신(목사공손), 실경대구전대구시종회회장, 태길청주, 안산이목종친회.

- 20만원 : (按)영식여주파종회이사, 재성오창파종회사무국장, 재철인천, 형남양주수도권종회감사, 성회병천전대종회부회장 태운병천대종회사무총장, 재홍청주좌랑공종회회장, 태준파종회 부회장, 사옹공종회 (翼)수원현감공종회, 광득안동(부사공손), 재원부산, 영채강능(목사공손), 현식(목사공손), 만길고창파종회사무국장 (書)규은파종회총무, 덕영
- 10만원 : (按)태영여주화산군종회회장, 태용여주병사공종회회장, 홍식여주. 윤회양성공손, 태영천안, 태경개봉동, 성회오산목사공손, 재두오창, 재복진천, 의회진천, 태관괴산부회장, 근목보은, 성회(미상) 태평 광기 (翼)재남화성화성종회회장, 석교안동(부사공손), 동수안동(부사공손), 성식안동(부사공손), 광현안동(부사공손), 용복안동(부사공손), 영화대구(?), 중원대구, 재옥대구, 태영충주, 구식충주, 용목충주, 재광서울문영공종회회장 (書)재균. 규면안양고문, 철호마포전총무, 돈영, 각영, 하영

- 按. 翼. 書 파종회 종인 여러분들의 협조에 힘입어 순조롭게 모금되고 있습니다.
- 정간공할아버님의 단비, 어록비, 사적비, 제막일은 금년11월18일(음 10월 초5일)입니다.
- 성금입금은 새마을금고4609-09-000555-5 정간공종회

- 와비에 현상태로 기재하려 하오니 좋은 의견이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성금을 내셨는데 본란에 기재가 잘못되었거나 하시면 알려주세요
- 종회는 동명 이인이 많아서 먼 훗날까지 나를 알리기 위하여는 알 수 있는 표시 (예)고향, 종사참여 직위 등 표시 바랍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종친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 5. 11 ~ 7. 31)

- 평생회비
- 20만원 : (典)홍식(화성), (文)성식(군산), (大)성태(수원), (翼)홍호(용인) 計: 800,000원
- 찬조금
- 10만원 : (翼)완식(영주), 복남(음성), 종대(영주)
- 5만원 : (翼)윤식(서울), 수대(영주), 용해(인천), (都)영수(서울)
- 3만원 : 만열(사천김씨,성남) 計: 530,000원
- 통상회비
- 4만원 : (按)태원(괴산)
- 3만원 : (密)재국(서울), (郡)발용(하남), 태웅(일산), (提)태경(인천) (按)재관(용인), 재기(오창), 재선(김천), 상연(서울),

- (都)원회, 희재, 희국(의성), (翼)태철(부여), 창희(문경), 봉수(인제), (副)철환(청주), (文)태환(성남)
- 2만원 : (典)상희(서울), 수영(대전), (副)기석(청주), 규빈(서울), (提)태성(청주), 용식(서산), 용구(당진), 태웅(서울), 태하(서울), 상옥(천안) (翼)재환(서울), 태원(남양주), 재형(양양), 노수(서울), 재천(거창), 기환(일산), 은순(의정부), 태훈(청주), 율희, 정준(인천), 인식(안동), 진창(대구), (正)수진(남양주), (大)태권(광주), (郡)호영(평창), (文)덕(울산), 연근(서울), 재문(대구), (按)도희(수원), 태봉(인천), 만열(사천김씨,성남)
- 1만원 : (副)태형(대전), (文)재희(서울) 計: 1,160,000원

총렬공 탄신 800주년 성금 (2012. 5. 16 ~ 7. 31)

- 개성윤공파 (1,300,000원)
- 군사공파 (5,320,000원)
- 20만원 : 광탄종중
- 15만원 : 재근(부안)
- 전서공파 (6,500,000원)
- 300만원 : 참의공종중
- 부사공파종회 (1,100,000원)
- 문온공파 (7,850,000원)
- 안정공파 (1,500,000원)
- 50만원 : 파종회, 재덕(공주)
- 30만원 : 봉기(성남)
- 도평의공파 (24,050,000원)
- 대호군공파 (950,000원)
- 제학공파 (6,200,000원)
- 30만원 : 태옥(괴산), 태환(청주)

- 10만원 : 상옥(천안)
- 판삼사공파 (500,000원)
- 안렴사공파 (10,200,000원)
- 30만원 : 흥희(청주), 재만(청주), 선회(서울)
- 10만원 : 도희(수원)
- 익원공파 (19,710,000원)
- 100만원 : 영학(부산)

- 30만원 : 영식(서울), 종희(태안) 성회(부여)
- 서운관정공파 (2,600,000원)
- 정의공파 (1,000,000원)
- 기타 (32,450,000원)
- 10만원 : 최중철(수성최씨, 서울) 計: 8,350,000원
累計: 121,230,000원